2015년
10월 7일 수요일

NO.402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동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철도시설공단, KTX 행신역 홈지붕 설치공사 본격 추진!

– '16년 상반기 설치 완료... 우기 · 동절기 이용객 불편 해소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의선 행신역의 KTX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홈지붕 설치공사를 9월 24일 본격 착수한다.

행신역은 고속철도 고양차량기지 내에 위치한 국내 최북단 KTX역사로, 그동안 승강장 총길이 325m 중 최소길이인 56m만 홈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비나 눈 등 악천후 시 열차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본 공사는 2008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완공 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역사 이용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홈지붕 설치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역사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도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수인선 송도역인근 '철도덮개 구조물' 설치 완료

– 철도소음 방지 및 이동편의 위해 2개월 조기 완공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수인선 송도역인근 옥골지역주민의 요청 수렴사업인 철도덮개구조물(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설치를 9월 24일 완성함으로써 지역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송도역 인근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철도소음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이 철도상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금년 5월 7일 공사 착수하여 주 · 야간으로 공사를 시행한 끝에 당초 계획공기보다 2개월 앞당긴 9월 24일 철도덮개 구조물을 완공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이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및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에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초 수인선 개통을 위해 노반, 궤도, 시스템분야 등 잔여 공사를 안전시공하여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옥골구역 철도덮개구조물 현황사진

철도공단, 용지보상관리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UP

– 17단계→8단계... 시간 · 비용 단축해 신속한 사업 추진 –

경영지원실(실장 이병환)은 업무 효율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복잡하고 까다롭던 '용지매수관리시스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One-Stop시스템" 으로 개선, 9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현재 철도건설을 위해 6천여 건(6천5백억원)의 용지보상 업무를 추진 중으로, 기존 시스템은 용지 Life-Cycle(조서작성→감정평가→협의→보상금지급→자산취득) 관리를 위해 복잡한 입찰절차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중복입력, 집계오류 등이 발생하였으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자료입력체계를 단순화하여 총 17단계 입력절차를 8단계로 축소 ·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자료입력 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되었고(1건당 15~30분→5~10분), 용지보상내역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까다로운 용지매수처리와 보상창구 민원업무에 시간을 더욱 집중할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토지보상 업무의 정확성, VOC(고객의 소리)의 신속한 처리 등 고객 불만을 실시간으로 해소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용지보상관리시스템 입력절차 개선 · 축소 내용

기 존	개 선
용지MP:4→토지세목조서:5→감정평가:6→보상:2	용지MP:4→토지세목조서:2→보상:2

철도공단, 경원선 월정리역사 설계공모 시행

– 10월2일 제안서 접수... 남북통일 · 유라시아 철도연결 등 염원 반영 –

건설본부(본부장 김재홍)는 경원선 철도복원사업 단계 구간(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간, 9.3km)의 최북단에 위치한 시흥차역인 월정리역사(경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2489번지 일원)의 현상설계 공모를 시행한다고 9월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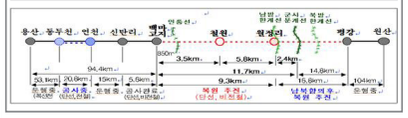
설계공모는 10월 2일 제안서 접수, 11월 27일 작품접수 후 12월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16년 6월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17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상세설정 및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k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정리역사는 남북철도 사업으로 건설된 도라산역(경의선), 제진역(동해북부선) 이후 세 번째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3,900㎡ 규모로 건설계획으로, 공단은 설계공모를 통해 역사 내외부에 남북통일, 유라시아 철도연결 등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예술성이 반영된 인테리어 설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DMZ 안보 · 생태 관광지역임을 감안하여 여객시설 외에 다양한 편의시설(카페테리아, 편의점, 전시관 등)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출입관리시설(CIQ)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2단계로 건설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경원선 복원에 따른 월정리역사 건설로 강원북부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신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경원선 철도복원 노선약도



철도공단, 추석 전 공사대금 등 4,714억원 조기집행

건설본부(이사장 강영일)는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 약 4,714억원을 조기집행하여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와 장비, 자재업체, 현장근로자까지 대금이 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철도건설 사업을 위한 공사대금, 용지보상비, 용역비, 지급자재비 등 4,714억원을 추석 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원체험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7일~11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으로 전국 35개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였고, 9월 17일부터~25일까지 공단 내 '추석 기성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특별지원반' 을 오후 11시까지 운영하여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신청 폭주로 발생한 대금청구시스템(CIPMS)의 지연, 오류 등의 협력사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철도건설 근로자의 대금회기 지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경영실 이사장은 "경기 부양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추석 연휴 전까지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추석 맞아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품 전달

시설장비사무소(소장 김동엽)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지역아동센터' 등 방문하여 1백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설장비사무소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오송읍에서 추천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아이들에게 문구류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설장비사무소 관계자는 "아동센터는 처음 방문하였는데 아이들이 철도 차량이나 장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다음 기회에 사무소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인연을 계기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부선 횡단하는 '영동지하차도' 9월 23일 전면 개통

– 편의시설 확충 · 방음벽 설치 등 '영동역사 대변신 중'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영동역사 하부를 횡단하는 '영동지하차도'를 9월 23일 전면개통하고 박래복 영동군수, 박덕흠 국회의원 등 내빈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공단은 경부선 철도로 인해 영동을 시가지가 양분되어 지역주민들이 횡단을 위해 약 1km 우회하는 등 불행에 불편을 겪자 2013년 8월부터 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번 개통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영동역 주변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역은 1일 약 2,200여 명이 이용하는 지역 거점역으로 공단은 승객 및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승강설비(EV)를 증시키와 여유될 쉬셩, 거슬림 혹쳰에 승격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홀대합실을 상하행선에 각 2개씩 총 4개를 설치하는 공사도 9월 착공하였으며, 이에 앞서 영동군 관내 철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활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공사비 2억30백만원을 들여 총 230m 길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노병국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철로주변 개량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동역 승강장 여객편의시설 설치

□ 승강설비(E/S)
- 공사내용 : 출입구확상 · 하행 각 1기, 상선홀(상행)1기, 하선홀(상행 1기에 E/S 총 4기 설치
- 공 사 비 : 35억원
- 공사기간 : 2015.09 ~2016.12

□ 홀대합실
- 공사내용 : 홀 4개소(상 · 하선홀 각 2개, 6m×3.5m) 홀대합실 설치
- 공 사 비 : 2.4억원
- 공사기간 : 2015.09 ~2016.12

□ 영동역 구내(상행) 방음벽 설치
- 공사내용 : L=236.60m, H=3.0m
- 공 사 비 : 2.36억원
- 공사기간 : 2015.06 ~2015.09

□ 영동역 구내 지하차도 신설공사
- 공사내용 : 구조물(L=Type 8m, Box Type 84m), PMT 가설교량 1식
- 공 사 비 : 140억원
- 공사기간 : 2013.08 ~2015.10

옥천 KTX 폐철길, 관광명소로 변신 중!

– 대전도심 KTX 전용선 개통... 폐선부지 '철도테마공원' 11월 오픈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8월 1일 정부고속철도 대전도심 KTX 전용선 개통으로 인해 발생된 옥천KTX 남면 간선 폐선부지에 대전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9월 18일 '옥천 KTX 철도테마공원' (가칭) 부대시설을 및 경관조성 인허가 승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단은 대전 남면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어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1월 관광자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아 레일바이크 등 유휴시설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최근 지역주민 찬성동의를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옥천 KTX 철도테마공원' 에는 10월 중 경작장 및 체험학습장을 우선 개장하고, 레일바이크 · 와인저장고 · 스카이로드 등은 순차적으로 조성 완료하여 11월 최종 오픈할 예정이다.

옥천 레일바이크는 대전(850만명), 청주(850만명), 세종(150만명) 등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KTX선로를 이용한 국내 유일한 레일바이크 시설로써 이로 인해 옥천군 내 연간 관광객 17만명, 부가가치 40억원, 직접 고용 20여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국 본부장은 "옥천 레일바이크 사업은 폐철도 재활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 사업시행자에는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지자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단은 폐선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철도공단, 100년된 경부선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 착수!

– 10월 중 실시설계 착수계획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은 8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부선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10월 중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밀양강 철도교량의 하선은 1903년에, 상선은 1945년에 건설된 100년 이상의 철도교량으로 그 동안 경부선 철도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으나, 철도운행 시 소음이 심하고, 교각사이 거리(경간장)가 좁아 홍수에 취약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철도공단은 오래된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0월 중 실시설계를 발주해 2016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철 영남본부장은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5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현표까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이며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교량을 건설하겠다" 고 전했다.

2017년까지 수도권 전철역 안전문(스크린도어) 100% 설치

– 국가재정과 철도공단 先투자 통해 총 4,200억 원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수도권 광역철도 지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역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철 승강장(고상홈)에서의 안전사고(추락, 투신 등) 예방과 지하역사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큰 안전문 설치 확대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 중이나, 재원조달이 어려워 차년까지 8년 간 설치율이 34%(총 대상역 224역 중 78개역 설치)로 도시철도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 역에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광역철도 승강장에도 안전문을 조기에 전면설치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확신 차원에서 내년부터 부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전동열차가 운행중인 모든 역에 설치를 완료 할 예정이다.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334억원으로 금년까지 1,134억원이 투입되고, 조기설치를 위하여 2017년까지 4,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재원 1,100억 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통하여 3,1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부터 설계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2년(2016년 69개역, 2017년 70개역)에 걸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 모든 역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 설치되면 승강장에서의 안전도가 대폭 향상되어 승강장 안전문이 없는 여에서 발생하던 사상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전망이며, 지하역의 경우 공기질 개선과 함께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승강장 안전문 설치 대상역

노선별	계	설치 대상역	비 고
	139		
경부선	22	노량진, 금천구청, 광명, 석수, 군포, 당정, 의왕, 성균관대, 화서, 세류, 서동탄, 세마, 오산대, 오산, 진위, 송탄, 서정리, 지제, 성환, 직산, 두정, 천안	
경원선	21	서빙고, 한남, 외대앞, 가좌, 도봉, 도봉산, 양주, 덕정시, 동두천중앙, 덕계, 보산, 소요산, 동두천, 월계, 창동, 광운대	
경의선	19	서울, 신촌, DMC, 수색, 화전, 장항, 행신, 능곡,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탄현, 운정, 금릉, 금촌, 월롱, 파주, 문산	
경인선	6	오류동, 백운, 도화, 제물포, 도원, 인천	
경춘선	19	상봉, 중랑, 마석, 상천, 신내, 행신대학, 사릉, 남춘천, 춘천, 퇴계원, 가평, 청평, 금곡, 강촌, 대성리, 별내, 천마산, 김유정, 굴봉산	
과천선	1	대공원	
분당선	5	가천대, 대모산입구, 개포동, 구룡, 이매	
수인선	9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안산선	10	수리산, 대야미, 반월, 한대앞, 중앙, 고잔, 초지, 신길온천, 정왕, 오이도	
일산선	3	상수, 장항산, 대곡	
장항선	6	봉명, 쌍용, 아산, 배방, 온양온천, 신창	
중앙선	18	구리, 양수, 도농, 양평, 양원, 운길산, 용문, 도심, 팔당, 양정, 오빈, 덕소, 중앙, 양수, 국수, 아신, 원덕, 신원	

* 기 설치역 중 추가설치 대상 8개역(구로, 신도림, 의정부, 죽전, 청량리, 신길, 안산, 가좌)

[참고2]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현황

구 분	광역철도	도시철도											공항철도
		메트로	서울	9호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부산~김해	의정부	신분당선	
운영역수	231	120	157	25	108	59	29	20	22	21	15	6	11
설치역수	78	120	157	25	76	10	29	11	22	21	15	6	11
설치율 (%)	33.8	100	100	100	70.4	16.9	100	55	100	100	100	100	100

[참고3]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에 따른 사상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 명)

구분		합계	선로근접/무단횡단	선로추락/지장	승강장역/추락	열차와이동/자살	비고 (미설치역)
계	사고건수	108	1	10	14	83	
	사망	61	1	3	1	56	
	중상	38	0	4	8	26	
	경상	9	0	3	5	1	
'12년	사고건수	38	–	2	3	33	154
	사망	23	–	–	1	22	
	중상	11	–	–	1	10	
	경상	4	–	2	1	1	
'13년	사고건수	32	–	5	3	24	150
	사망	20	–	3	–	17	
	중상	9	–	1	1	7	
	경상	3	–	1	2	–	
'14년	사고건수	38	1	3	8	26	151
	사망	18	1	–	–	17	
	중상	18	–	3	6	9	
	경상	2	–	–	2	–	

* '15년 현재 231개 역사 중 153개 역사 미설치
(미설치 1역당 사망 0.134건, 중상 0.083건, 경상 0.019건 발생)

[참고4] 승강장 안전문 설치 전 · 후 사진

[참고] 승강장 안전문 전면설치 관련 Q&A

◈ 승강장 안전문 전면설치에 따른 공급증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승강장 안전문 전면설치 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 자주 발생하던 추락, 투신 등 사상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어 승강장에서의 안전도가 대폭 향상"* 될 뿐만 아니라 지하역사의 경우 공기질 개선과 함께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됨.

* 최근 3년간 총 108건 발생(사망 61명, 중상 38명, 경상 9명) 발생세부내역 : 별첨0)
** 인천시고 예방대 98건, 사망 56명, 중상 34명, 경상 8명에 따른 간접비 절감 266억

2. 승강장 안전문 전면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정부재정(1,100억원, 철도 안전시설 개량비 550억(년)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선투자(3,100억원, 철도공단 채권발행)를 통해 조달

※ 철도공단 채권발행 규모는 설계 및 계약 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5까지	향후계획		
			소계	'16	'17
계	5,334 (231)	1,134 (92)	4,200 (139)	2,050 (69)	2,150 (70)
국 고	2,234 (130)	1,134 (92)	1,100 (38)	550 (19)	550 (19)
공 채	3,100 (101)	–	3,100 (101)	1,500 (50)	1,600 (51)

( ) : 설치개소, 공채 : 한국철도시설공단 채권발행

중앙선 단양역사 신설, 9월 22일 사용개시

– 주민 편의 위해 3년 조기 착공... 대합실 3배 확대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단양역사 1단계 공사를 우선 완료하고 9월 22일부터 신설 역사 사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단양역사는 당초 '17년 상반기 차공예정이었지만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이보다 약 3년 앞당겨 '14년 5월 조기 착공하였으며, 최종 역사는 2016년 2월 완공할 예정이다.

단양역사의 외관은 지역 명소인 도담삼봉을 형상화하였고 관광객 수요증가를 감안, 기존 대합실 규모를 3배 가량 대폭 확대(148㎡→396㎡)하여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2018년 완공 예정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시공과 공정단축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철도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단계(940㎡) – 본코스, 역무실, 지원시설(전기실, 기계실, 신호실)
2단계(330㎡) – 냥 · 냥한 대합실, 여객화장실

[참고] 도담~영천 복선전철 단양역사

□ 개 요
· 수송수요 및 시설규모

구 분		기존역사	신축역사	비 고
1일 수송수요(여객연도)		388명('12년)	1,754명('27년)	
시설규모	역 사	697㎡(95년 신축)	1,270㎡	신 축
	연결통로	–	523㎡	신 설
	홀 지 붕	950㎡	1,187㎡	신 설

· 사 업 비 : 96억원

투시도 단양역사 단계별 건설 개념도

철도공단 강원본부, 노인요양원 '안나의 집'에 추석위문품 전달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9월 2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안나의 집'을 방문하여 쌀, 과일 및 청소기등 추석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원본부 KR봉사단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되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작은 정성이나마 어르신들과 나눔 수 있어 행복하다. 어르신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최정환 본부장은 "강원본부는 매년 설 · 추석명절을 앞두고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원주법상공동체 무료급식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후원시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강원본부 조득호 기자>

철도공단 호남본부, 추석명절 소외계층에 '사랑나눔' 실천

– 복지시설 · 조손가정 등에 20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9월 21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순천시 관내 자매결연 복지시설과 조손가정 등을 찾아 2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노인복지시설인 애재마을에는 7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세트, 아동시설인 조파동아동센터에는 쌀 100kg과 부식을 전달하였으며 조손가정 37가구에는 쌀 60kg과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1사나눔 결연마을인 구례군 방광마을의 영세민 15가구에 생활용품세트를 전달하는 등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이현정 본부장은 "따감게 맞아주는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보는 정만으로도 뿌듯했다" 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기적인 후원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호남고속철 횡단 지하차도 전구간 개통 '박차'

– 정읍지하차도 개통으로 19개소 완전개통...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지난 9월 25일 정읍지하차도 개통으로 호남고속철도를 횡단하는 시설(지하차도, 과선교 등) 총 20개소(익산시 6개소, 김제시 1개소, 정읍시 8개소, 장수군청 7개소) 중 19개소를 완전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지자체에 인계 후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시구간 남중육교 등 5개소는 2014년 10월 31일까지 개통하였으며, 중앙지하차도는 철도횡단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어 익산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접속구간 완공되면 2016년 9월 개통할 계획이다.

김제시구간 상동과선교는 2014년 4월 30일 완전개통했으며, 정읍시구간 정읍지하차도 등 7개소는 2015년 9월 25일까지 개통하였고, 상평지하차도는 2014년 2월 임시개통 하였으나 정읍시 시행 구간은 도시계획변경을 반영한 후 개통할 계획이다.

장수군청 7개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개통하였고, 임시 개통하여 사용 중인 신덕지하차도는 지자체와 협의 후 10월 중으로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가 관통하는 익산시 등 4개 지자체에 철도횡단시설이 개통됨으로써 그동안 동서로 양분되어 단절되었던 지역간 이동이 원활해져 지역주민 교통편의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도심구간 철도주변 교통혼잡에도 일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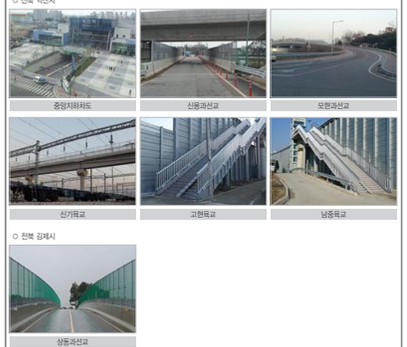
이현정 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차도신설 등 철도횡단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1] 철도횡단시설 현황

지역명	구조물명	사업비(억원)			시설규모	개통시기
		계	공단	지자체		
합계	22개소	1,933	1,706	227	6,031m	
익산시 (6개소)	중앙지하차도	430	430	202	L=840m(폭50m,8차선)	16.09일 개통(예정)
	신용과선교	16	16	–	L=50m(폭8m,2차선)	13.12월 완전개통
	보면과선교	45	45	–	L=85m(폭13m,2차선)	13.12월 완전개통
	신기육교	12	12	–	L=77m(폭4m,보도육교)	12.12월 완전개통
	고현육교	8	8	–	L=35m(폭4m,보도육교)	14.10월 완전개통
	남중육교	8	8	–	L=35m(폭4m,보도육교)	14.10월 완전개통
	소계	721	519	202	1,122m	
김제시 (1개소)	상동과선교	8	8	–	L=95m(폭8m,2차선)	14.4월 완전개통
	소계	8	8	–	95m	
정읍시 (8개소)	농소지하차도	100	100	–	L=776m(폭23m,4차선)	15.04월 완전개통
	농흥지하차도	59	59	–	L=235m(폭16m,2차선)	14.01월 완전개통
	장주지하차도	95	95	–	L=240m(폭29m,6차선)	14.04월 완전개통
	정읍지하차도	120	95	25	L=402m(폭23m,4차선)	15.09월 완전개통
	연지지하차도	60	60	–	L=180m(폭23m,4차선)	14.01월 완전개통
	천변지하차도	20	20	–	L=210m(폭23m,4차선)	14.04월 완전개통
	상평지하차도	44	44	–	L=254m(폭23m,4차선)	14.02월 임시개통
	동천과선교	22	22	–	L=110m(폭11m,2차선)	13.06월 완전개통
	소계	520	495	25	1,497m	
장수군 (7개소)	장수1지하차도	430	430	–	L=806m(폭31m,6차선)	15.05월 완전개통
	장수2지하차도	35	35	–	L=15m(폭10m,2차선)	15.05월 완전개통
	산장1지하차도	47	47	–	L=171m(폭21m,4차선)	14.01월 완전개통
	산장2지하차도	10	10	–	L=53m(폭12m,2차선)	15.06월 완전개통
	소촌지하차도	37	37	–	L=126m(폭11m,2차선)	14.11월 완전개통
	신덕지하차도	106	106	–	L=175m(폭36m,4차선)	14.11월 임시개통
	차량기지보도육교	19	19	–	L=92m(폭 3m)	15.05월 완전개통
	소계	684	684	–	1,417m	

[붙임2] 현장전경사진

○ 전북 익산시



○ 전북 김제시

○ 전북 정읍시

○ 장수군청

철도공단 · 건강보험공단, 청렴문화 확산 위해 손 맞잡다

– 추석 앞두고 반부패 · 청렴 캠페인 펼쳐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진)와 공동으로 대전 중앙시장 및 은행동 일대에서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 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 기관의 임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여 청렴 팸플릿을 시장 및 은행동 일대 상인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청렴사회 구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두 기관은 2010년부터 상호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을 맺고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 를 위해 매년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노병국 본부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반부패 ·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경부선 횡단하는 '영동지하차도' 9월 23일 전면 개통

– 편의시설 확충 · 방음벽 설치 등 '영동역사 대변신 중'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영동역사 하부를 횡단하는 '영동지하차도' 를 9월 23일 전면개통하고 박래복 영동군수, 박덕흠 국회의원 등 내빈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공단은 경부선 철도로 인해 영동을 시가지가 양분되어 지역주민들이 횡단을 위해 약 1km 우회하는 등 불행에 불편을 겪자 2013년 8월부터 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번 개통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영동역 주변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역은 1일 약 2,200여 명이 이용하는 지역 거점역으로 공단은 승객 및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승강설비(ES) 증시키와 여유될 쉬셩, 거슬림 혹쳰에 승격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홀대합실을 상하행선에 각 2개씩 총 4개를 설치하는 공사도